



# 프로도 울고 갈 진짜 '가을야구'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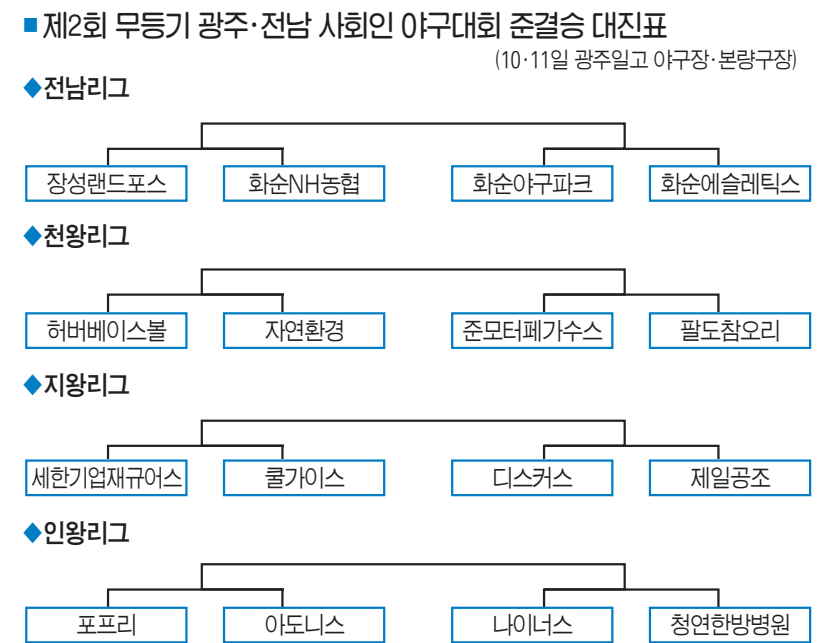
##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4강전 10일 개막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열정의 사나이들 진검 승부

무등기 정상을 향한 4강 팀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 준결승 경기가 10·11일 광주야구장과 분당구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5주차 경기를 통해 천·지·인왕리그와 올 시즌 신설된 전남리그의 4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10일 분당구장에서 전남리그 결승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이날 오전 8시 장성 랜드포스와 화순 NH농협이 전남리그 4강 첫 경기를 치르고, 오전 10시에는 화순 야구파크와 화순 에슬레틱스가 맞붙는다. 11일에는 분당구장에서 인왕리그 경기가 열리고, 광주야구장에서 천왕·지왕리그의 준결승 경기가 치러진다. 인왕리그의 포프리와 '디펜딩 챔피언' 아도니스가 이날 오전 8시 분당구장에서 만나

고, 오전 10시에는 나이너스와 청연한방병원이 결승 진출을 다툰다. 광주야구장에서는 4경기가 치러진다. 오전 8시 천왕리그의 허버베이스볼과 자연환경의 대결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팔도참오리와 준모터페가수스가 승부를 갖는다. 오후 12시부터는 지왕리그 경기가 전개된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세한기업 재규어스

가 청연한방병원 롤가이스와 대결을 벌인다. 디스커스와 제일공조의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한편 지난 9월23일 막이 오른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대회에는 총 47개팀이 참가했으며, 전남리그가 새로 추가되면서 올 시즌에는 4개의 우승팀이 탄생하게 된다. 대회 결승은 11월17일과 18일 무등기야구장에서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4대 리그 4강 진출팀

#### ① 전남리그

##### 화끈한 화순 농협인들 야구로 뭉쳤다

◇ 화순 NH자이언츠(대표 김영철)  
화순 농협인들 야구로 뭉쳤다. 결과에 승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NH 자이언츠의 매너 야구를 그린다.  
▲ 감독 : 홍기남 ▲ 선수 : 정길호, 안상섭, 양진영, 염철용, 문병관, 문현주, 문병현, 조병현, 김영기, 강영철, 구정철, 윤지훈, 정대일, 김태윤, 전용대, 김길수, 김대경, 홍환희

##### 상무대 기계화학교 교관들 '군대 야구'

◇ 장성랜드포스(대표 김한)  
장성 상무대 기계화학교 교관들이 유니폼을 입었다. 우수한 실력은 아니지만 끈기있는 야구로 결승을 노린다.  
▲ 단장 : 박상국 ▲ 감독 : 김한 ▲ 부장 : 김은철 ▲ 선수 : 기용현, 유영수, 박성훈, 박정석, 임광훈, 이문환, 이태수, 이정식, 김민철, 조대희, 김남규, 문준호, 손일승

##### 야구가 좋아서 만난 순수 아마추어팀

◇ 화순에슬레틱스(대표 이형석)  
야구가 좋아서 만난 순수 아마추어팀. 매너있고 또 재미있는 야구를 위해 매주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 감독 : 이형석 ▲ 선수 : 박원식, 김성철, 윤관, 김용환, 류세환, 이성원, 이철규, 최주성, 나경호, 손용수, 이상현, 이태수, 이정문, 선영수, 김경태, 정진수, 이승룡

##### 20~30대 젊음과 패기로 결승에 도전

◇ 화순야구파크(대표 유재현)  
2011년 1월 20~30대 선후배들이 만나 젊음과 패기의 팀을 구성했다. 야구를 통해 친목을 쌓고 있다.  
▲ 감독 : 유재현 ▲ 선수 : 문용남, 송원준, 김정훈, 임승현, 강인원, 유철, 김연식, 장근영, 이창우, 정준영, 김정호, 우만철, 김경재

#### ② 천왕리그

##### 15년 전통 준비된 야구로 우승 노려

◇ 자연환경야구단(대표 백규식)  
즐겁고 활기찬 야구가 목표다. 15년 전통의 준비된 야구를 통해 무등기 결승 무대에 도전한다.  
▲ 감독 : 백규식 ▲ 총무 : 박철준 ▲ 코치 유진우 ▲ 선수 : 류영광, 최용희, 정상현, 박경중, 김동수, 서재근, 김광수, 조훈풍, 박성호, 강경호, 김기동, 김지용, 양건우, 최명환, 조준오, 김영권, 오창호

##### 情으로 쌓은 탄탄한 팀워크가 강점

◇ 준모터스 페가수스(대표 이석우)  
10년의 역사를 통해 쌓은 팀워크가 돋보인다. 실력 보다는 정을 우선으로 한 팀워크의 야구를 준비한다.  
▲ 단장 : 이진용 ▲ 감독 : 김영학 ▲ 총무 : 이석우 ▲ 코치 : 임호성, 오광석, 손우광 ▲ 선수 : 정동준, 박상태, 정희석, 김상호, 임창일, 김희욱, 염원식, 임성찬, 남정우, 김종성, 한승오, 박용표

##### 열정·매너로 '뚝뚝' 최고 야구단 꿈꿔

◇ 팔도참오리아구단(대표 양준태)  
쓰나미팀에서 팔도참오리로 새롭게 시작됐다. 야구 열정과 매너를 통해 최고의 사회인 야구단을 꿈꾼다.  
▲ 단장 : 이승열 ▲ 감독 : 양준태 ▲ 총무 : 박선주 ▲ 선수 : 송승철, 김윤찬, 오경환, 강기석, 김창호, 양민준, 양명준, 심형호, 손근, 박정일, 김도국, 김경호, 박혜원, 문정수, 이선중, 류시홍, 김명수

##### 연습장에서 만나 인연 쌓고 친분 쌓은 팀

◇ 허버 베이스볼 클럽(대표 고기영)  
2011년 12월 창단한 신생팀. 야구 연습장에서 만난 인연, 야구로 친분을 쌓고 실력도 쌓아가고 있다.  
▲ 단장 : 고기영 ▲ 감독 : 장승욱 ▲ 코치 : 조자룡, 강두형, 김건국 ▲ 총무 : 박종승 ▲ 선수 : 김희수, 이진용, 조강열, 정영학, 유기룡, 김용준, 허민강, 김중환, 주민호, 이세환, 김광진, 고성주, 오부영, 문수호

#### ③ 지왕리그

##### 열정으로 뚝뚝 뭉쳐 건강과 단합 도모

◇ 디스커스(대표 안중문)  
패기보다는 야구 열정으로 뚝뚝 뭉친 연륜의 팀. 건강과 단합을 모토로 야구를 즐기고 있다.  
▲ 단장 : 안중문 ▲ 감독 : 노승기 ▲ 선수 : 안승평, 이치현, 김용희, 송승용, 노성근, 전훈, 서상익, 이상범, 육경완, 김성현, 김남훈, 류경표, 서선대, 장인창, 김영대

##### 일요일에 만난 '야구 가족' 실력도 최고

◇ 제일공조(대표 지한수)  
매주 일요일 야구로 하나가 되고 있는 실력있는 팀. 2009년 우승을 차지했던 저력으로 무등기에 도전한다.  
▲ 감독 : 지한수 ▲ 선수 : 김대근, 조나현, 문원식, 이태훈, 이태인, 김종삼, 김상택, 박광진, 윤정인, 최형석, 이유범, 이왕석, 이호진, 이상일, 서욱수, 최현석

##### 10년 넘는 역사 '팀워크가 끝내줘요'

◇ 세한기업 재규어스(대표 김치균, 정경국)  
2001년 창단해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5년 이상 호흡을 맞춘 가족적인 분위기로 팀워크가 장점이다.  
▲ 단장 : 김치균 ▲ 감독 : 정경국 ▲ 코치 : 국범석 ▲ 선수 : 김승걸, 서승태, 김성주, 서승철, 윤계성, 박상신, 김민영, 문상준, 홍길준, 김상선, 홍성준, 김용운, 박선열, 임현석, 김용홍, 오창욱

##### "3할의 안타보다 7할의 범타 활용하자"

◇ 롤가이스(대표 김형성)  
3할의 안타보다 7할의 범타를 잘 활용하는 야구를 꿈꾼다. 막강라 이벌 재규어스와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 감독 : 김형성 ▲ 코치 : 정기재 ▲ 선수 : 박지성, 김병조, 김선일, 김재욱, 김영주, 김현성, 이준식, 이종배, 설상일, 이윤신, 이현진, 송재열, 강인식, 김정석, 박경술, 최진, 김승룡, 지민석

#### ④ 인왕리그

##### 초대 대회 우승... 실력·인성 겸비한 강팀

◇ 아도니스(대표 정재훈)  
지난해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평균연령 40대 중반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문 사회인 야구팀.  
▲ 감독 : 정재훈 ▲ 선수 : 노경호, 신대섭, 이병관, 이선주, 박건, 박우현, 김철영, 임방호, 박병오, 최복열, 유창완, 주상익, 김재성, 설진삼, 김창집, 김귀성, 조정운, 김창갑, 천이두

##### 야구 3년차 왕초보들 무등기 반란 꿈꾼다

◇ 포프리(대표 손제우)  
야구경험도 선수출신도 없는 3년차 왕초보들. 하지만 '포프리'라는 이름으로 뚝뚝 뭉친 팀워크와 자신감 그리고 열정이 있다.  
▲ 감독 : 손제우 ▲ 선수 : 김희수, 오성주, 손제형, 조현진, 백영건, 조상용, 홍승표, 박광수, 김상현, 김현수, 오인환, 위하연, 정욱, 장대성

##### 초보에서 베테랑까지 어울린 저력의 팀

◇ 청연한방병원야구단(대표 김중관)  
20대부터 40대까지 또 사회인 야구 초보에서 10년차 베테랑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저력의 팀이다.  
▲ 감독 : 김중관 ▲ 선수 : 김형석, 이성열, 조서원, 천재홍, 이봉운, 박성재, 장상원, 허용석, 허도남, 류영광, 노수영, 양성환, 김경준, 정승환, 김상민, 유진우, 이태현

##### 12년 전통 단단한 팀워크로 끈끈한 야구

◇ 나이너스(대표 배동성)  
2000년 창단한 전통의 나이너스. 팀워크의 야구, 꾸준한 야구로 매년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 감독 : 배동성 ▲ 총무 : 조태현 ▲ 코치 : 최재재 ▲ 선수 : 강유영, 강재춘, 김승영, 김준석, 이상봉, 김철현, 임준석, 윤형환, 배동해, 김성준, 최광명, 정재호, 오현주